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2

최근 어떤 학생과 얘기하던 중, 자기 친구 하나가 이번 학기에 '전교 9학점'을 듣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쓰는 표현이라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조금 씩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교 9학점이란 말이 이번 학기에 모두 교양과목만으로 9학점을 듣는다는 뜻이더군요. 경제학부에 막 진입한 학생인가 본데, 미시경제이론,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세 가지 전공과목을 모두 중도 취소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제학부생으로서의 첫 걸음을 잘못 떼어놓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학생뿐 아니라 대체로 요즈음의 학생들은 강의를 약간 무질서하게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대학시절을 보내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텐데요. 다른 일은 조그만 것 하나까지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왜 강의를 선택할 때만은 그리 대범해지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등록금 비싸다는 불평이 많은데, 등록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대학생활에서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사회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학에서 어떤 강의를 어떤 순서로 듣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혀 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성격상 모든 학생에게 꼭 들어맞는 정답은 없을 겁니다. 또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 보려 하니,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나중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대학생활의 경우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성공적으로 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로 현명하게 강의를 선택해 들어 놓아야 그 뒤의 대학생활이 순탄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광역화 모집이 시작된 이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사람이 무척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경제학부 학생 중에는 공부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학에서의 첫 1년을 잘못 보낸 데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경제학부에 진입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1학년 때 경제학원론 1과 2를 모두 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듯, 이런 당연한 코스를 거쳐 경제학부에 진입하는 학생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듣지 않은 사람이 많을뿐더러, 아무 것도 듣지 않고 경제학부로 들어온 사람도 꽤 많은 형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학부에 진입한 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학원론을 처음 배울 때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이런저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면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나 기본적인 분석 기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원론 책에 나오는 수많은 그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꽤 많이 쌓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첫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그 뒤의 과정이 순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경제학원론 1에서 A+를 맞은 학생조차 미시경제이론을 들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같이 보입니다. 경제학원론 1을 듣지 않은 사람이 미시경제이론을 듣는다면 그 어려움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미시경제이론이 경제학원론 1의 연장이라

는 말은 맞지만, 이 둘 사이에 현저한 난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시경제이론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바로 기술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수학적 기법도 간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학에 별 자신이 없는 사람이 경제학의 기본개념마저 잘 모른다면 미시경제이론을 듣는 것은 고문과도 같은 일일 겁니다.

경제학부로 진입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1학년 때 꼭 들어야 하는 강의는 비단 경제학원론 1과 2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수학이나 기초적인 수학 과목 하나 정도는 꼭 들어두어야 합니다. 최근 고등학교 문과 과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이지요? 많은 학생이 생생하게 증언하리라고 믿지만, 미적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다행히 시험문제를 잘 풀어 웬만한 학점을 딸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하는 기간 내내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고학년생들에게는 내 이런 말이 아무 쓸모없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바에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고학년이 된 학생이라도 내 말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이 내가 말하는 당연한 코스를 밟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한다면 뒤늦게나마 그 코스를 밟기를 권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경제학원론1과 2, 그리고 경제수학 같은 강의를 수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이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그 부분의 공부로부터 다시 시작해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1학년 시절을 잘못 보내 고생한 경험이 있는 고학년생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후배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충고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후배 사이에서 오가는 정보의 내용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강의를 들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느냐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의를 들으면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느냐 같은 정보를 주로 주고받는다든가 인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1학년 시절을 제대로 보내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강의 선택과 관련해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충고는 기본과목의 성격을 갖는 것들을 가능한 한 빨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수학, 경제통계학의 '기본 4과목'은 2학년 때 모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기본과목들을 뒤로 미루는 학생들이 있는데, 당장에는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당장의 편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좀더 진취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본 4과목을 빨리 이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고학년의 경제학 과목들이 이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학, 화폐금융론, 주채과, 산업조직론, 게임이론, 국제경제학, 노동경제학 등 대부분의 고학년 과목들은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이 과목들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경제수학과 경제통계학에서 배우는 것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4과목을 빠른 시기에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빠른 시기에 이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2학년 시절에는 이 기본 4과목에 전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널럴한' 과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

습니다. 이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벽차다고 느낀다면 나머지 과목들은 널널한 것들로 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 과목들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언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본 4과목을 수강하고 웬만한 학점을 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배운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학기 중에 배운 것을 완전히 소화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기말 시험이 끝난 후에도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미시경제이론을 가르치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학기말 시험을 치는 단계에서 수강생들의 평균적 이해도는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도 80%를 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추가적 노력이 없이는 결코 100%의 이해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세 번째 충고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전공과목만 너무 많이 듣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학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내 개인적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니 그 점을 참작해 듣기 바랍니다. 내가 전공과목을 너무 많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공부를 계속할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사회로 바로 진출할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충고입니다.

우선 사회로 바로 진출할 사람이라면 폭넓은 교양이 성공적인 커리어의 핵심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 무슨 일을 하든 지금 배우는 경제학적 지식을 그대로 써먹을 기회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경제학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생활에 그리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역사, 문학, 철학, 그리고 과학에 관한 소양은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짧게 보면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정말로 활용도가 높은 것은 폭넓은 교양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일을 하면서 배워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대학의 문을 나서면 교양을 쌓을 기회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교양의 기초를 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할 사람이라면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공부를 계속할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양한 교양과목을 듣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대학원에 가서 이런저런 경제학을 실컷 배우게 될 테니 학부 때는 교양과목을 많이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부 때 경제학 과목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훌륭한 경제학자들의 학부 배경을 보면 경제학뿐 아니라, 물리학, 수학, 철학, 역사학 등 그 전공분야가 실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학부 때 경제학 아닌 다른 학문을 전공하고서도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학부 때 들은 경제학 과목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상과대학은 교양과목의 불모지대였습니다.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는 영어과목 한 분과 체육과목 한 분이 고작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다

할 교양과목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비하면 수많은 교양과목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처지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의 교양을 가르치는 분들은 사회에서 그 분야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나가 이런 분들을 모셔 가르침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대학에 있을 때 다양한 부문의 강의를 원 없이 들어두는 것이 두고두고 ‘남는 장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쓰다 보니 앞에서 쓴 글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꽤 있는 것 같군요.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널리 이해해 주세요. 이 글에서 여러분에게 준 충고를 한 마디로 요약해 보면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강신청을 할 때도 정도를 따르라.”가 될 것입니다. 1학년과 2학년 각 단계에서 그 때 들어두어야 할 것을 꼭꼭 챙겨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요령을 피우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당장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정도를 걸어야만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알차고 보람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